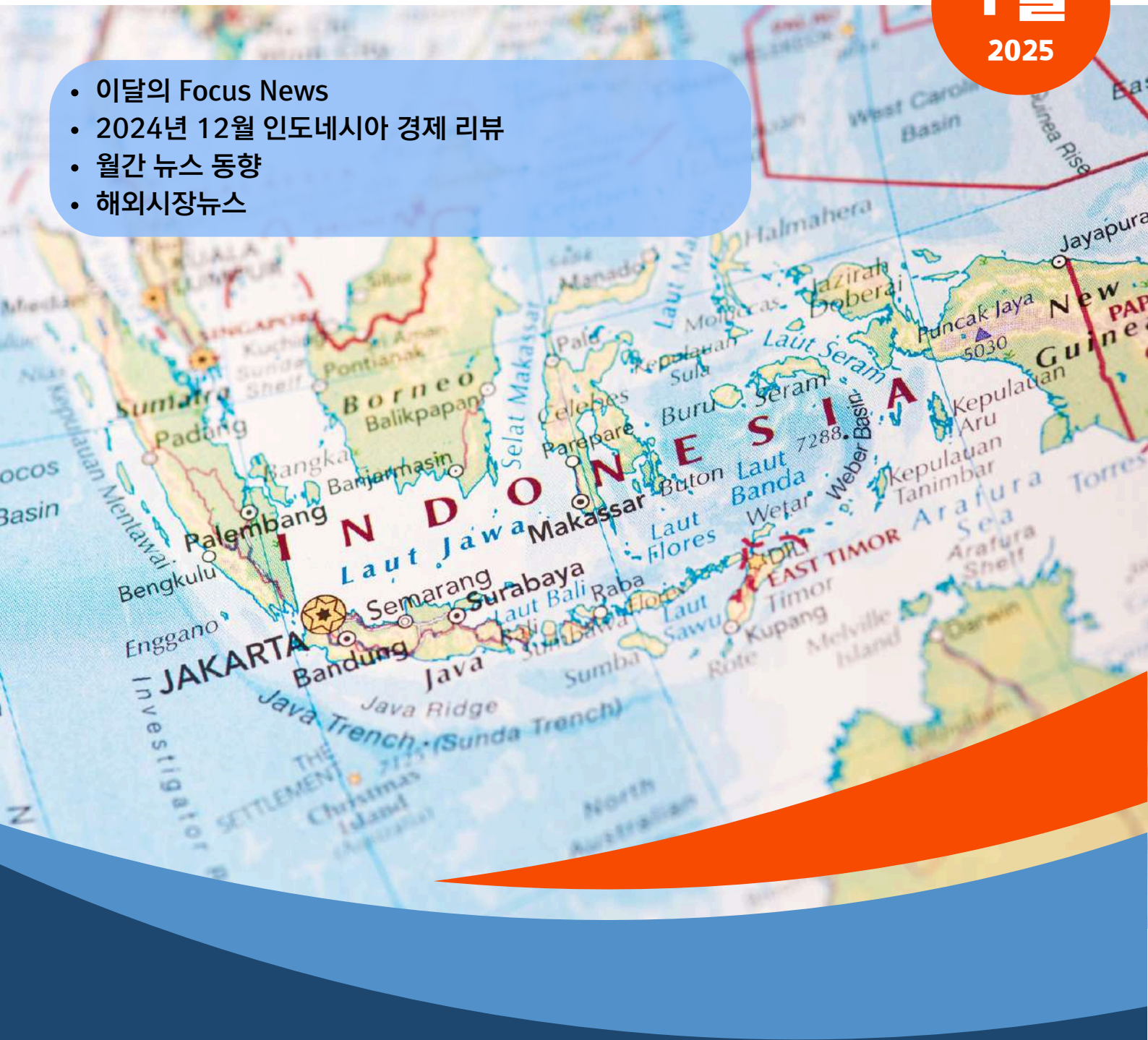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뉴스레터

INDONESIA BUSINESS NEWSLETTER

1월
2025

- 이달의 Focus News
- 2024년 12월 인도네시아 경제 리뷰
- 월간 뉴스 동향
- 해외시장뉴스



인도네시아 정부, 연말 앞두고 부가세 인상 철회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5년 1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었던 부가가치세(VAT) 1% 인상 계획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철회하기로 결정함.

PRABOWO SUBIANTO(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SRI MULYANI INDRAWATI(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 재무부 장관은 부가가치세(VAT) 인상이 11%에서 12%로 오르는 조치는 고급 상품과 서비스에만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해당 품목에는 개인용 제트기, 크루즈선, 요트, 그리고 3,000억 루피아(미화 185만 달러) 이상의 부동산이 포함됨. 또한, 고급 자동차와 오토바이 구매도 부가세 인상의 영향을 받게 됨.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기존에 11% 부가가치세(VAT)가 적용되던 기타 상품과 서비스에는 세율 변경이 없다고 밝혔음.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결정에서 소비자 물가를 급등시키고 생계비 위기 속에서 12월 16일에 발표한 부가세 인상 정책을 일부 철회했음. 당시 정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부가세를 전반적으로 12%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며, 산업용 설탕, 밀가루, 정부 보조 프로그램을 통해 판매되는 저가형 식용유 등 일부 품목만 예외로 인정한다고 밝힘.

이번 인상은 2021년 제정된 조세 조화법(법률 제7호/2021)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2022년 4월 1일 부가세를 10%에서 11%로 인상한 데 이어 2025년 1월 1일에는 12%로 추가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인도네시아 정부는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 가구에 쌀을 배포하고, 전력 사용량이 최대 2,200볼트암페어 이하인 가구에 대해 전기요금 50% 할인을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 지원책도 함께 내놓았음.

[The Jakarta Post, 01.01.]

2024년 12월 인도네시아 경제 리뷰

2024년 3분기 인도네시아 경제 업데이트



2024년 3분기 인도네시아 경제는 전년 동기 대비 4.95%, 전분기 대비 1.50%로 2021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5% 미만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5.05%(전년 동기 대비)와 3.79%(전분기 대비)의 성장률을 기록했던 2분기보다 낮은 수치이며, 국내 및 글로벌 요인이 모두 영향을 미쳤다. 이번 감소는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에서 중산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8년 23%에서 2023년 18.8%로 줄어든 것을 반영한 것임.

이번 분기 가계 소비 둔화 조짐은 성장률이 4.91%로 전 분기 4.93%와 지난해 같은 분기 5.05%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함.

GDP의 53%를 차지하는 국가 경제의 주요 축인 공공 소비의 감소로 인해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음. 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4.91% 성장을 기록하며, 이는 레스토랑과 호텔 소비가 주도했음. 교통 및 통신 소비도 증가했으며, 이는 대중의 여가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임.

부문별로는 여전히 제조업이 GDP의 19%를 차지하며 전년 동기 대비 4.7% 성장해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음. 이와 같은 성장은 특히 식음료 부문(5.8% 성장)과 비금속 산업(12.4% 성장)의 강력한 내수 수요에 힘입은 결과임. 지역별로는 말루쿠와 파푸아가 천연자원 개발 정책에 힘입어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글로벌 측면에서는 불확실한 글로벌 상황이 지속되어 인도네시아에 영향을 끼침. 여러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과 중국의 경기 둔화는 인도네시아의 수출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철광석, 석탄, 니켈 등 국가 주요 원자재 가격이 전년 대비 13.3%, 7.3%, 20.4% 하락했으며, 이는 GDP 순수출 기여도 -0.08%로 반영되었음.

2024년 12월 인도네시아 경제 리뷰

노동 시장의 경우 2024년 8월의 실업률은 4.9%로 2023년 8월의 5.3%보다 낮아지며, 이는 노동 시장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섬유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부문의 해고 증가로 인해 2024년 2월(4.8%)보다는 약간 높은 수치를 기록함.

또한 완전 고용자 비율은 2023년 8월 68.92%에서 2024년 8월 68.06%로 하락했으며, 불완전 고용률은 6.68%에서 8%로 증가했음. 이외 같은 상황은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낮추었으며, 이는 이번 분기 가계 소비 둔화 추세를 설명할 수 있음.

경제 성장 둔화는 인도네시아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산층의 공식 근로자 비율 감소로도 설명할 수 있음.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공식 근로자에서 비공식 근로자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 2019년 공식 근로자는 중산층 전체 노동력의 61.71%를 차지한 반면, 비공식 근로자의 비율은 38.29%에 그쳤음.

다만, 코로나19 이후 중산층 고용 여건은 악화되고 있으며, 이는 비공식 근로자 비중이 2024년 40.6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산업 부문에서 중산층 근로자가 감소하고 농업 부문으로의 이동이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농업 부문이 위기 완충 역할을 하면서도 인도네시아 중산층 고용의 질이 저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Perbanas, 12.11.]

2024년 12월 인도네시아 경제 리뷰

인도네시아 무역 수지, 54개월 연속 흑자 기록



SRI MULYANI INDRAWATI(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무역 수지는 세계 경제가 악화되는 가운데 지난 54개월 동안 흑자를 유지하며, 2024년 10월까지 수출액이 244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 흑자를 달성하였음.

SRI MULYANI 재무부 장관은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지난 54개월 동안 인도네시아의 무역 수지가 10.2% 증가했다고 말함. 동 무역수지 흑자는 제조업과 다운스트림 부문의 수출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것으로 의미함.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5년 국가 예산 초안에서 경제 성장률 5.2%, 인플레이션 2.5%, 10년 만기 국채 이자율 7% 등 몇 가지 경제 예측을 설정했음. 재무부 장관은 2025년 국가 예산이 국내총생산(GDP)의 2.53%인 616조 2천억 루피아의 적자를 목표로 설계되었다고 밝혔음.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루피아 환율을 달러당 1만 6천 루피아, 원유 가격은 배럴당 82 루피아, 원유 채굴 및 가스 채굴량은 605천 배럴, 가스 채굴량은 하루 1.005만 배럴로 예측함.

[Antara News, 12.11.]

2024년 12월 인도네시아 경제 리뷰

인도네시아, 2025년 1,200억 달러 투자 목표 설정



인도네시아는 2025년에 1,906조 루피아(1,972억 달러)의 투자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2024년 목표보다 15.45% 증가한 수치임. ROSAN ROESLANI(로슬란 로슬라니) 인도네시아 투자부 장관은 2025년 목표가 정부의 투자 전략의 일부이며, 향후 5년 동안 꾸준한 성장을 희망한다고 언급함.

투자부 장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이와 같은 야심찬 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5년 동안 총 13조 528조 루피아의 투자가 필요함.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실질 투자 실현액이 전년 대비 19.78% 증가한 1,261조 4,300억 루피아에 달했으며, 본년도의 전체 목표의 76.45%를 달성했음. 그 중 50% 이상이 자바 섬에 대한 투자가 기여했으며, 이러한 투자로 인해 18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음.

최근 INSTITUTE OF MANAGEMENT DEVELOPMENT(IMD)의 2024년 세계 경쟁력 순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2023년의 34위에서 개선된 세계 27위를 차지했음.

[Jakarta Globe, 12.11.]

2024년 12월 인도네시아 경제 리뷰

인도네시아, 코로나 이후 두 번째로 큰 무역 흑자 기록

인도네시아는 11월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여 2023년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태를 해제한 이후 두 번째로 큰 무역 흑자를 기록했음.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에 따르면, 11월 인도네시아의 무역수지는 44억 2,000만 달러로 3월에 기록한 45억 8,000만 달러 흑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흑자를 기록함.

11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9.14% 증가한 24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2022년 12월 이후 두 번째로 가장 높은 수치임.

석유 및 가스, 그리고 그 외 원자재는 각각 2.73%와 9.54% 증가했으나, 월별 수출은 1.7% 감소했음. AMALIA ADININGGAR WIDYASANTI(아말리아 아디닝가 위다산티) BPS 청장 대행은 비석유 및 가스 분야 수출의 연간 증가는 니켈, 기계 및 전기 기계가 주도했으며, 철강과 원유 팜유(CPO) 같은 주요 상품의 수출도 동 기간 동안 증가했다고 언급함.

HOSIANNA EVALITA(호시안나 에발리타) 민간 대출 기관인 다나몬 은행 이코노미스트는 11월 수출 실적 개선은 여러 원자재의 가격 상승에 힘입어 이뤄졌다고 말했음.

그 결과 인도네시아는 BPS 데이터에 따르면 1월부터 11월까지 32억 1,000만 달러의 구리 수출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7.1% 증가한 수치임. BPS에 따르면, 코코아 수출액도 같은 기간 평균 코코아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115% 상승한 데 힘입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110.9% 증가했음.

한편 11월 수입은 전월에 비해 10.71% 감소한 195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함. AMALIA BPS 청장 대행은 전체 수입의 35%를 차지하는 인도네시아의 일반 기계, 전기 기계, 철강의 연간 출하량이 각각 2.52%, 0.09%, 3.61% 감소했다고 언급함.

호시안나 다나몬 은행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수입 증가율은 전년 대비 0.01%로 둔화되었으며, 이는 휴가철을 앞두고 사전 구매로 인해 10월에 수입이 급증한 후 수요가 감소한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함.

석유 및 가스 분야의 무역 적자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180억 2천만 달러에서 2024년 186억 4천만 달러로 확대된 반면, 비석유 및 가스 분야의 흑자는 같은 기간 516억 2천만 달러에서 475억 달러로 축소되었음.

2024년 12월 인도네시아 경제 리뷰

가장 큰 적자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발생했으며, 작년 첫 11개월 동안 1억 7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던 것이 올해는 99억 달러로 확대되었음. 이와 같은 큰 적자는 기계, 전기 기계 및 자동차의 수입 증가로 인해 발생했음.

한편, 인도네시아는 동 기간 동안 전기 기계, 의류 및 신발, 석탄, CPO 및 철강 덕분에 미국과 인도에 대한 무역 흑자는 각각 151억 3천만 달러와 143억 7천만 달러로 늘었음.

[The Jakarta Post, 12.16.]

인도네시아, 저탄소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원자력 추진

인도네시아는 파리 협정에 따른 탄소중립 약속을 지키면서 국내 에너지 수요를 충족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음. 이는 당초 목표인 2039년보다 7년 빠른 2032년에 소규모 원자력 발전소의 상업 가동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국가 전력 수요는 2030년까지 50% 증가하며, 2060년까지 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15년 이내에 화석 에너지를 단계적으로 퇴출하겠다고 공약한 PRABOWO SUBIANTO(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새 정부에 도전 과제가 되고 있음.

컨설팅업체인 MCKINSEY & COMPANY의 THOMAS HANSMANN(토마스 한스만) 파트너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전체 전력 생산량 중 67%는 석탄, 21%는 가스와 디젤에서 공급되고 있음.

프라보워 대통령은 향후 15년 동안 총 75기가와트(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기회를 국제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음. 한스만 파트너는 인도네시아가 2060년까지 에너지 안보를 유지하려면 발전 용량을 400GW 이상으로 확대하고 75%를 재생 에너지로 충당해야 한다고 언급함.

한스만 파트너는 또한 수요 증가를 충족하면서 석탄에서 저탄소 전력으로 전환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투자, 특히 기저부하 재생에너지의 확산 속도와 규모, 그리고 탄소 포집 및 저장(CCS)과 같은 탄소 저감 기술의 도입에 달려 있다고 말하였음.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인도네시아가 추가한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217.73메가와트(MW)에 그치며, 연간 목표치인 326.91MW의 66.6%에 불과했음.

BAHLIL LAHADALIA(바흐릴 라하달리아)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은 정부가 국가 에너지 믹스에서 신재생 에너지원의 비중을 크게 확대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소 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음.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국가에너지위원회(DEN)는 2032년 원자력 상용화라는 정부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원자력 에너지 프로그램 실행 위원회(KP2EN) 설립에 집중할 예정임.

인도네시아는 초기 개발 단계에서 250~500MW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전기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방안임.

MCKINSEY & COMPANY의 RICARDO REINA(리카르도 레이나) 부파트너는 인도네시아가 소형모듈원조(SMALL MODULAR REACTOR, SMR) 기술 개발을 시작하였다고 밝혔음. 리카르도 부파트너는 최근 사례를 보면, 원자력 발전소를 처음 건설하는 국가들은 대형 전통적 경수로(LIGHT WATER REACTOR, LWR)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했음. 이와 같은 사례 중 하나로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를 들며, 해당 발전소는 착수부터 가동까지 약 15년이 소요되었다고 말함.

BOB EFFENDI(밥 에펜디) 인도네시아 원자력 회사 PT THORCON POWER INDONESIA의 최고운영책임자(COO)는 국가 에너지 계획 초안(KEN)에 인도네시아 원자력 발전의 첫 단계로 소형 원자로 도입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음.

인도네시아 원자력 규제 기관(BAPETEN)은 미국, 러시아, 유럽연합, 한국 또는 캐나다로부터 인도네시아의 원자력 분야 개장을 위한 투자를 유치할 수 있기를 희망함.

[The Jakarta Post, 12.09.]

인도네시아,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3%의 사치세 인센티브 제공



인도네시아 정부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전기자동차(EV) 인센티브를 포함한 일련의 경제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으며, 전기자동차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는 이미 시행 중임. AIRLANGGA HARTARTO(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 장관은 정부가 내연기관과 전기 모터를 모두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세금 부담도 줄여줄 것이라고 언급함.

하이브리드 자동차에는 현재 6~12%의 사치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새로 발표된 할인이 적용되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사치세율은 9%로 제한될 예정이다. 한편, 완전 전기 4륜차는 이미 사치세 인센티브를 받고 있음.

현재 부품의 40% 이상을 현지에서 생산한 전기차는 부가가치세(VAT) 1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인도네시아에서 판매되는 동 세금 감면 대상 차량에는 현대 아이오닉 5와 우링 에어 EV가 포함됨.

인도네시아 자동차 산업 협회(GAIKINDO)에 따르면,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배터리 자동차에 비해 더 인기가 있음.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도매 판매량은 36,672대에 달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동안 27,548대가 판매된 배터리 전기 자동차의 도매 판매량을 크게 웃도는 수치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의 도매 판매량은 118대에 달했음.

인도네시아는 2060년까지 또는 그 이전에 탄소 배출량 제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이 목표를 2050년으로 수정했음.

[Jakarta Globe, 12.16.]

인도네시아 증시, 30세 미만 개인 투자자가 대세



인도네시아 증권 시장의 개인 투자자 기반은 젊은 세대가 지배하고 있으며, 30세 이하의 사람들이 1,480만 명의 개인 투자자 중 54.92%를 차지하고 있음. ADITYA JAYAANTARA(아디티아 자야안타라) 인도네시아 증권 시장 투자를 감독하는 금융감독청(OJK) 부국장은 12월 24일 기준으로 개인 투자자의 전체 수가 260만 명 증가하였다고 발표함. 증권거래소 개인 투자자의 총 수는 1,481만 명에 달했으며, 이 중 54.92%가 30세 미만인 개인 투자자들임.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증권 시장은 올해 251조 루피아(150억 달러)의 거래를 기록하여 목표치인 200조 루피아를 초과했음. 12월 27일까지 인도네시아 증권 거래소는 187건의 기업공개(IPO)를 시행하고 35개의 신규 기업이 상장되었으며, 총 거래액은 251조 루피아에 달했음.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IDX)는 인도네시아의 유일한 증권거래소로, 주식, 채권, 파생상품 및 기타 증권의 거래 플랫폼을 제공함. 지난 몇 년 동안 IDX는 디지털화와 강력한 금융 교육 캠페인의 지원으로 투자자 참여가 크게 증가했음. IDX는 또한 중소기업 전용 보드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려는 노력으로 인정받고 있음.

거래 활동의 허브인 것 외에도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는 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상장 기업들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관행을 채택하도록 장려하며, 지속 가능한 투자의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고 있음.

[Tempo, 11.12.]

2025년 예산안으로 보는 인도네시아 정책 방향

2025년 인도네시아 국가 예산안이 약 2,306억 달러(3,621조 루피아)로 책정되어 지난 9월 하원을 통과했음. 차년도 재정 로드맵인 이번 예산안에는 프라보워 대통령이 강조한 영양 개선을 위한 무상급식 프로그램, 노후 학교 시설의 현대화와 교육 환경 개선, 무료 건강검진 제공을 통한 공공 건강 증진, 농업 생산성 증대와 식량 안보 강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었음. 특히, 수하르토 시대의 농업 정책을 계승하며, 장기적인 식량 자급률 제고를 목표로 한 구체적인 전략이 담겼음. 이번 예산안은 경제 및 사회적 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이하 내용에서는 2024년 10월 기준 루피아/달러 환율 1달러당 15,705 IDR을 사용하였음.

2025년 예산안의 주요 특징

2025년 인도네시아 국가 예산안에 따르면, 총 세입 목표는 약 1,913억 달러(3,005조 루피아), 총 지출은 약 2,306억 달러(3,621조 루피아)로 결정되었음.

<연도별 정부 예산안 추이>

(단위: 억 달러,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세입	1,110	1,175	1,568	1,784	1,913
지출	1,751	1,728	1,949	2,117	2,306
재정적자비율	5.7	4.9	2.8	2.3	2.5

[자료: 인도네시아 재무부]

세입 측면에서 살펴보면, 2025년 세입 목표는 2024년 1,784억 달러 대비 약 7.2% 증가한 1,913억 달러로 설정되었음. 이는 정부가 조세 기반 확대와 세원 강화를 통해 예산 집행 계획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보여줌. 주요 세입원은 세수 1,586억 달러와 비세수 수입(PNBP) 327억 달러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조세 정책 강화, 공공 서비스 수익 확대를 통한 비세수 수입 증대 전략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됨.

한편, 2025년 법인세(CIT) 세입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개인소득세(PIT) 세입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법인세율은 지난 5년간 단계적으로 22%에서 20%로 인하되었으며, 이는 기업의 세부담을 줄여 투자 여력을 확대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정책적 의도를 반영한 것임. 이러한 변화는 법인세 비중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개인소득세 기반을 강화하고, 세입 구조를 다변화하려는 정부의 전략과 맞물려 있음. 이는 세수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정부의 방향성을 보여줌.

2025년 인도네시아 정부 지출 예산은 2,306억 달러로 책정되었으며, 이는 2024년 1,784억 달러 대비 8.9% 증가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음. 이번 지출 증가는 교육, 보건, 식량 안보 등 우선순위 정책을 지원하는 동시에, 교통 및 에너지 인프라 개선과 빈곤 완화 프로그램에 재정을 투입한 것이 특징임. 이러한 지출 확대는 사회적 격차를 줄이고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 포괄적 성장과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달성하려는 정부의 목표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됨.

정책 우선순위와 배분

<2024-2025년 분야별 예산 비교>

(단위: 억 달러, %)

분야	2024년	2025년	증감률
교육	423	461	9.0
사회보장	316	320	1.3
인프라	270	255	-5.6
법률 및 치안	211	240	13.7
보조금	182	196	7.7
보건	119	139	16.8
식량안보	73	92	26.0
지방정부 이전	546	586	7.3

[자료: 인도네시아 재무부]

2025년 예산안에서 주목할 부분 중 하나는 교육 부문임. 프라보워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무상 급식 정책이 이번 예산안에 반영되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를 위해 약 45억 달러(71조 루피아)의 신규 예산을 편성했음. 정책 실행을 위해 국가영양청(National Nutrition Agency)이 설립되었으며, 2025년부터 이슬람 기숙학교 학생, 임산부, 5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임. 정부는 2029년까지 모든 아동과 임산부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정책이 완전히 시행될 경우 매년 약 254억 달러(400조 루피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됨. 이와 함께 교사 인센티브 예산도 대폭 확대되었음. 2025년에는 전년도 36억 달러(57조 루피아)에서 44억 달러(70조 루피아)로 22.8% 증가했으며, 이는 교직원의 사기 진작과 교육 품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줌.

2025년 인프라 부문 예산은 2024년 대비 5.52% 감소했음. 감소된 예산에도 불구하고 주요 지출 항목은 식량 안보를 위한 인프라(관개 시설 및 댐), 교육 인프라(학교 개보수), 의료 인프라(병원 건설), 주택 개발, 그리고 신수도 프로젝트(IKN) 등으로 구성되었음. 특히, 신수도 이전 예산은 9.5억 달러(15조 루피아)로, 이 중 신수도관리청에 약 3.7억 달러(5.8조 루피아), 공공사업 및 주택부에 5.7억 달러(9조 루피아)가 할당되었음.

2025년 신수도 이전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예산은 2023년(27조 루피아) 및 2024년(39.8조 루피아) 대비 크게 감소한 수치임. 한편, 프라보워 대통령의 300만 호 주택 건설 계획과 관련해 정부는 국가 예산 외에도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이를 위해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CSR) 프로그램 예산을 활용해 프로젝트를 지원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전략을 추진 중임.

2025년 인도네시아 예산안에서 식량 안보 예산은 27% 증가하며, 모든 부문 중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는 장기적 식량 자급자족 달성을 목표로 한 정책의 일환임. 주요 우선순위로는 농지 확대, 비료·종자·농약 등 투입재의 접근성 개선, 관개 시설 및 댐과 같은 인프라 강화, 농산물 유통망 개선 등이 포함되었음. 프라보워 대통령은 150,000헥타르의 신규 농지를 개발하여 2024년 쌀 생산량을 250만 톤 증가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음.

보건 부문에서는 병원 인프라를 개선하고 모든 국민에게 종합적인 건강검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음.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결핵 환자 감소, C급 병원 건설, 아동 성장 부진(stunting) 문제 해결, 감염병 통제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2023년 제정된 보건법 제17호에 따라 의무 지출 규정이 폐지되면서, 보건 예산이 실질적인 필요에 기반해 배분될 수 있는 체계로 전환되었음.

마지막으로 에너지 보조금은 2025년에 6.1% 증가한 130억 달러(204.5조 루피아)로 책정됐음. 이는 2024년 122억 달러(192.8조 루피아)와 비교해 소폭 상승한 수치로, 에너지 접근성을 유지하고 보조금 수요 증가에 대응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반영한 것임.

시사점

2025년 인도네시아 정부의 예산안에서 여러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음. 우선, 신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 성장을 자극할 것으로 보임. 2025년 예산안에는 무상급식 정책, 공공 주택 개발, 의료 프로그램 등 정부 재정 투입이 요구되는 다양한 정책이 포함되었음. 이러한 지출은 민간의 가처분 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소비를 진작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프라보워 정부는 임기 중 8%대의 경제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민간 소비 활성화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이와 동시에 세수 확보는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 인도네시아의 GDP 대비 세수 비율은 약 12.1%로, OECD 평균인 34%에 비해 낮은 수준임.

인적자원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인적자원의 질적 개선은 2025-2045년 국가장기개발계획(RPJPN)의 핵심 목표 중 하나이자, 동시에 중요한 도전 과제로 지목되고 있음. 2025년 예산안에서는 교육과 보건 분야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교사 인센티브 확대가 학생들의 교육 수준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또한, 결핵 환자 감소와 성장 부진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 보건 프로그램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평가됨. 이러한 정책들은 교육과 보건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장기적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눈에 띄는 또 다른 특징은 인프라 분야 예산 삭감임. 인프라 정책은 인도네시아에서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 요소로, 조코위 전 정부 시기(2014-2024년) 동안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음. 이 기간 동안 1,800km 이상의 유료도로가 개통되고, 56개의 댐이 건설되었으며, 공항과 항구의 수 또한 크게 증가했음. 국가장기개발계획(RPJPN)에서는 신수도 이전 프로젝트를 동서 간 경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제 대전환을 이루는 핵심 프로젝트로 평가하고 있음. 그러나 2025년 예산안에서 신수도 관련 예산이 감액된 점은 다양한 해석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경제 개혁 센터(Center of Reform on Economics, CORE)는 자카르타가 여전히 실질적인 수도 기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으며, 경제재무발전연구소(Institute for Development of Economics and Finance, INDEF)의 아리요(Ariyo) 연구원은 제한된 인프라 예산으로 인해 IKN 개발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을 제기했음. 한편, 감액된 예산에도 불구하고 프라보워 대통령은 2028년까지 신수도 누산타라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신수도 개발이 어떻게 진행될지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출처: KOTRA 해외시장뉴스